

보조용언 ‘오다’의 기능

김선영*

국문초록

‘오다’의 기능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기본 의미를 설정하고 이것이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렇게 파생적 의미로 설명하는 데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본고에서는 ‘오다’의 기능이 서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발달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결합 가능한 선행 용언이 서로 다르며 본용언 ‘오다’의 문법화된 의미 특성이 각기 다름을 들었다. 첫 번째 기능 ‘과거로부터의 지속’을 나타내는 ‘오다’의 경우 동사와 두루 결합하며 존재 형용사나 태도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 기능에서 본용언 ‘오다’의 이동의 의미는 시간적 이동으로, 화자를 착점으로 하는 의미는 현재나 현재 이전의 시간적 착점으로 문법화되었다. 다음으로 ‘점진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오다’의 경우 증상 형용사와 심리 형용사와의 결합이 두드러지며 빛이나 색 등의 자연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성상 형용사와도 빈도 높게 결합되었다. 동사와의 결합에서도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증상, 심리 등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용언이 지닌 이동의 의미는 점진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나 착점의 의미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착점의 초점화’를 나타내는 ‘오다’의 경우 발화 동사나 의미적으로 발화와 관련을 맺는 동사와 두드러진 결합 관계를 맺는다. 이 기능에서는 이동의 의미는 사라졌으며 착점의 의미는 행위 대상을 향한 방향을 나타내는, 착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변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어: 이동, 착점, 시간 지속, 상태 변화, 방향성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전임강사

1. 서론

본고는 보조용언 '오다'의 기능 및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오다'의 의미를 어떻게 구분할까가 문제가 된다. 연구자에 따라 하나의 기본 의미를 설정하고 이것이 문맥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기본 의미의 설정 없이 그 기능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 김성화(1990/2003: 153-172)와 손세모돌(1996: 121-138)을 들 수 있는데 '오다'는 기본적으로 '지속상'을 나타내며 문맥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기동(1977)에서는 이와 달리 하나의 기본 의미를 설정하지 않고 그 기능을 구분지어 설명하였는데 '오다'가 '동작의 지속', '상태의 변화', '감각 및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² 그러나 이기동(1977)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고 '오다'의 기능으로 함께 논의하는 등 보조용언 '오다'의 기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보기 어렵다.

현행 사전을 비교해 보면 '오다'의 의미 기술에 차이를 보인다. 먼저 《표

- 1 심사자께서 보조용언 '오다'를 '오다'로 표기할 경우 본용언 '오다'와 혼동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고에서의 표기 방식은 사전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본용언 '오다'와의 혼동을 막고자 본용언 '오다'를 언급할 경우는 '오다' 앞에 본용언임을 밝힌다.
- 2 이기동(1977)에서는 '오다'의 기능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예문을 고려하면 '장소의 이동'은 본용언에만 해당하는 기능으로, '상태의 변화'는 본용언, 보조용언 모두에, '동작의 계속'과 '감각 및 감정의 변화'는 보조용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오다’의 의미 기능을 하나로만 설명하였으며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두 가지로, 그리고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아래 (1)~(4)는 《연세 한국어사전》에 제시된 설명이다.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1)의 ‘행동이나 상태가 진행되는 상황’과 (2)의 ‘상태나 현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나누어 ‘오다’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3), (4)와 같은 기능을 별도로 두었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3), (4)의 기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1), (2) 기능만을 제시하였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1), (2) 기능을 묶어 하나로 기술하였다.

(1) [주로 동사의 ‘-아/어’꼴 뒤에 쓰이어] 어떠한 행동이나 상태가 현재를 향하여 계속되거나 진행됨을 나타냄.

¶ 종수는 영미가 마치 오래 전부터 사귀어 온 애인처럼 여겨졌다.

(2) [주로 동사의 ‘-아/어’꼴 뒤에 쓰이어] 일정한 상태나 현상이 시작되어 진행되어 감을 나타냄.

¶ 내일 아침에는 분명 눈부신 새 날이 밝아 올 테니까

(3) [용언의 ‘-아/어’꼴 뒤에 쓰이어] 일정한 시일에 가까워짐을 나타냄.

¶ 새벽이 가까워 오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지치고 있었다.

(4) [동사의 ‘-아/어’꼴 뒤에 쓰이어] 나에게 어떠한 행위를 취하다.

¶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오던 박석연과 마침내 통화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오다’의 의미를 위의 (1), (2), (4) 세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하나의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본용언 ‘오다’에서 각기 발달된 것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는 결합 가능한 선행 용언과

기능상에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에 근거한다. 각각의 의미를 하나의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그 차이가 꽤 큰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오다’의 기능에 따라 결합 가능한 선행 용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세 한국어사전》에서는 각각의 의미에 따른 선행 용언의 차이를 설명하였으나 이는 정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2)의 의미 모두 ‘오다’가 주로 동사에 결합하여 기능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말뭉치에 나타난 용례를 살펴보면 (1)의 의미는 ‘주로 동사’라고 한정할 수 있으나 (2)는 이렇게 한정하기 어렵다. ‘오다’ (2)는 일부 형용사와 현저한 결합 관계를 보이며 또한 이 형용사와 의미적으로 관련을 맺는 동사에 결합이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4)의 의미도 선행 가능한 동사를 더욱 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능에 따른 ‘오다’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각각의 기능이 독자적으로 발달되었다면 그 특징이 서로 달리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상의 특징을 본용언 ‘오다’의 의미 특징과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보조용언으로 문법화되는 과정에서 본용언의 의미 특징이 희석되는데 각각의 기능에서 어떠한 문법화된 의미로 남아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오다’에 선행하는 용언과 기능상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³ 본고에서는 말뭉치 용례를 토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⁴

3 손세모돌(1996: 138-144)에서 ‘오다’의 선행 용언에 대해 연구되었으나 ‘가다’와 묶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오다’의 선행 용언의 특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다’에 대한 연구는 전체 보조용언 연구나 ‘가다’와의 비교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다른 보조용언의 비교 대상으로 연구되다 보니 ‘오다’의 선행 용언이나 그 특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4 본고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균형말뭉치>를 이용하였다. 이에서 보조용언 ‘오다’로 형태

2. ‘오다’의 세 가지 기능

2.1. 과거로부터의 지속

‘오다’는 동사와 결합하여 과거로부터 지속된 상황을 나타낸다. ‘오다’에 선행하는 동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시간 길이에 구애를 받지 않고 동작이나 상황이 지속되는 부류와 다른 하나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동작이 이루어지는 부류이다.

(5) ㄱ. 배군은 서울대 전자 공학과를 지원해 졸업 뒤에는 오래전부터 꾸꾸 온 첨단 과학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ㄴ. 새로운 청소년 미디어 문화는 지금의 30대 이상의 기성 세대가 향유해왔던 문화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점을 많이 갖고 있다.

(6) ㄱ. 원하지도 않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광고료를 요구하는 등의 강압적인 광고거래를 행해왔다.

ㄴ. 무엇보다 따져야 할 일은 한강환경관리청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해왔으면서도 무단방류를 적발하지 못한 점이며 수질검사 역시 제대로 해왔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

(5)의 ‘꾸꾸다, 향유하다’는 상황에 따라 짧게 끝날 수도 있으나 보통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또한 이들 동사는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

소 검색하여 검색된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선행 용언과 ‘오다’가 결합된 표현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된 예들에 나타나는 특징을 참고하였다. 말뭉치에서 검색된 예들은 별도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이 뚜렷하게 인식되기 어려운데 이러한 동사와 ‘오다’가 결합하면 동사가 나타내는 상황이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지속된 의미를 나타낸다. (6)은 동사 ‘행하다’와 ‘하다’가 선행 명사와 이루는 동사구에 ‘오다’가 결합된 예이다. ‘행하다, 현장점검을 하다, 수질검사를 하다’는 한계점을 갖는데 ‘오다’가 결합하여 이들이 나타내는 상황이 과거로부터 반복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과거로부터의 지속의 의미는 다시 하나의 상황 지속과 상황의 반복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기능에서 ‘오다’는 주로 동사와 결합돼 쓰이는데 일부 형용사와도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말뭉치에서 그 예가 확인되는 형용사이다.

(7) ‘오다’와 결합 가능한 형용사

- ㄱ. 성상 형용사: 부진하다, 분분하다, 불가능하다, 비대하다, 비밀
비재하다, 융성하다, 지지부진하다, 치열하다
- ㄴ. 평가 형용사: 급급하다, 무관심하다, 무심하다, 부족하다, 소홀
하다, 익다, 익숙하다, 인색하다, 충실하다, 친숙하다
- ㄷ. 비교 형용사: 가깝다, 심하다
- ㄹ. 존재 형용사: 건재하다,⁵ 없다, 있다

5 ‘건재하다’는 ‘힘이나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데 문맥에 따라 ‘무탈하다, 정정하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존재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존재 의미가 보다 초점화된 용법에서 다음과 같이 ‘건재하다’에 형용사, 동사 활용형이 모두 확인된다. 현행 사전에서는 ‘건재하다’에 대해 형용사(《표준》, 《연세》) 또는 동사(《고려대》) 하나로만 기술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활용 양상을 고려하여 형용사·동사 양용 용언으로 판별한다. ‘있다’가 형용사적 용법에서도 ‘오다’와 결합되는 바와 같이 ‘건재하다’ 또한 형용사적 용법에서도 ‘오다’와 결합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그 혁혁한 민족적 전통은 오늘날의 그들의 생활 감정 속에도 여전히 건재하다.

김성화(1990/2003: 159), 김기혁(1987: 40)에서는 형용사에 ‘지다’가 결합해야 ‘오다’와 결합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7)의 형용사들은 ‘오다’와 직접 결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8) ㄱ. 이 프로들이 건재해온 더 큰 요인은 시청률에 있다.

ㄴ. “이런 일은 국회에서 과거에 많이 있어 온 관행인데 왜 우리만 문제를 삼느냐.”

ㄷ. 도굴도 도굴이었지만 이 능산리(陵山里) 왕릉들은 그래서 더욱 무덤의 진짜 주인공이 밝혀진 일이 없어 온 터였다.

(8ㄱ)의 ‘건재해온’은 프로그램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황을 나타내며 (8ㄴ)의 ‘있어 온’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8ㄷ)의 ‘없어 온’은 반대로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은 사건임을 전달하는데 일어났을 법한 일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렇듯 ‘지다’의 결합 없이 존재 형용사와 ‘오다’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정언학(2005: 206-212)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 ‘오다’는 보조용언으로 사용되었으며 동사에 결합이 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개화기까지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형용사와 결합된 예는 나타나지 않는데 형용사와의 결합은 최근에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존재 형용사 ‘있다, 건재하다’와 결합된 예가 말뭉치에서 다수 확인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 유한한 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다’의 의미 기능과 존재 형용사의 의미 특성이 서로 부합하여 존재 형용사와의 결합이 가능해진 것으로 추정된

(나) 팔만대장경은 만든 지 1,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재한다.

다. 존재 형용사 외에 인물의 태도를 나타내는 평가 형용사들과의 결합 역시 다음과 같이 관찰되는데 ‘오다’가 과거로부터 지속된 행동을 나타내는 기능에 가장 부합되는 형용사로 자연스럽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9) ㄱ. 그동안 우리는 양적 팽창에만 급급해 왔고 체격이 커지는 데 따른 체질의 개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ㄴ. 이같은 흐름에 대해 본 정부가 딱 무관심해 왔던 게 사실이었다.

ㄷ. 한편, 일본은 자신의 국부를 발전 도상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DAC)로 쓰는 데는 인색해 왔습니다.

ㄹ. 그동안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식량정책은 이른바 「베이징 3원칙」에 충실했다.

(10) ㄱ. 그동안 우리는 양적 팽창에만 급급해져 왔고 체격이 커지는 데 따른 체질의 개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ㄴ. 이같은 흐름에 대해 본 정부가 딱 무관심해져 왔던 게 사실이었다.

ㄷ. 한편, 일본은 자신의 국부를 발전 도상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DAC)로 쓰는 데는 인색해져 왔습니다.

ㄹ. 그동안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식량정책은 이른바 「베이징 3원칙」에 충실히 해 왔다.

앞서 동사에 따라 ‘오다’는 과거로부터 지속된 상황과 반복적으로 발생된 상황, 두 가지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9)의 예들은 두 가지 상황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 가령 (9가)의 ‘급급하다’는 양적 팽창과 관련된 각각의 사안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복적으로

발생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편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반복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관심하다, 인색하다, 충실하다’ 역시 마찬가지다.

(9)의 평가 형용사의 경우에도 ‘오다’와의 결합에 ‘지다’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0)과 같이 ‘지다’가 개재되면 형용사와 ‘오다’가 직접 결합된 형식과 의미가 달라진다. (9ㄱ)의 ‘급급해 왔고’는 과거의 급급한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급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급한 상태로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데 반해 (10ㄱ)의 ‘급급해져 왔고’는 급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급한 상태로의 변화가 느껴진다. ‘무관심해 왔다’, ‘무관심해져 왔다’, ‘인색해 왔다’, ‘인색해져 왔다’ 역시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9ㄴ)의 ‘충실해 왔다’는 ‘충실해져 왔다’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10ㄴ)의 ‘충실히 해 왔다’에 대응돼 형용사와 ‘오다’가 결합된 형식이 언제나 ‘지다’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동사가 과거 지속을 나타내는 ‘오다’와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지속된 상황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언제나 ‘오다’가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는 ‘오다’의 결합이 어색하다.

(11) ㄱ. ???/※ 해마다 봄이 되면 팔도강산에 다양한 들꽃이 피어 왔다.

ㄴ. ???/※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죽어 왔다.

(11)은 과거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일어난 상황임에도 ‘오다’와의 결합에 이상을 보인다. (11)은 자연 발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같은 자연 발생적인 상황에 ‘오다’가 결합된 예들은 말뭉치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다. (11)의 상황은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알기 어렵고 그 끝을 한정하기도 어렵

다. 그 시작과 끝이 인간이 관찰 가능한 시간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다’와의 결합에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오다’는 현재나 현재 이전의 어느 한 시점을 지향점으로 하여 그 이전부터 지속된 행위를 나타낸다. 본용언 ‘오다’의 이동 목표가 되는 화자는 현재나 현재 이전의 어느 한 시점으로 문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는 이기동(1977)에 제시된 예로 이를 보여준다. (12ㄱ)에서 ‘오다’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상황을 나타낸다. (12ㄴ)은 1945년 이전 시기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상황을 나타내는데 목표가 되는 시점을 넘어가면 ‘가다’에 의해 그려진다. 출발점, 지향점 모두 화자가 관찰할⁶ 수 있는 시간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미래는 출발점, 지향점 모두 될 수 없다. (12ㄷ)은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12) ㄱ. 창수는 작년부터 열심히 공부해 오고 있다.

(=이기동 1977: 149 예(25a))

ㄴ. 영국은 1945년까지 많은 영토를 잃어 왔고 그 이후에도 잃어 갔다.

(= " " 예(27))

ㄷ. *창수는 내년부터 부지런히 공부해 오겠다고 한다.

(= " " 예(26b))

출발점이 되는 시점과 지향점이 되는 두 시점 간의 시간 간격이 문제시

6 화자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화자에 의한 직접 관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록 등을 통한 간접적인 관찰도 포함된다. 관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많은 예에서 두 시점이 화자가 직접 관찰 가능한 시간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13), (14)는 ‘오다’의 결합에 이상을 보이는데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13) 수업 끝나고 나서 {여태까지/지금까지/그때까지} 숙제 안 하고 뭐 했니?

ㄱ. *게임을 해 왔지⁷/ ㄴ. 게임을 하고 있었지.

(14)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1년 동안/ ??⁸ 1시간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해 왔어.

(15) ㄱ.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건데 아버지께 받은 땅을 처분해야 할 것 같아.

ㄴ. 며칠 동안 친구의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왔지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ㄷ. 몇 시간 전부터 생각해 오던 바를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말했다.

(13)은 출발점이 되는 시점이 몇 시간 전으로, 지속 시간이 몇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14)에서 ‘1년 동안’과 달리 ‘1시간 동안’의 경우는 ‘공부만 해 왔어’의 사용이 부자연스럽다. 지속 시간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오다’의 사용이 자연스러운지 그 길이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말뭉치의 예를

7 (13)의 예는 손세모들(1996: 124)에서 제시한 다음의 예를 변용한 것이다. 손세모들(1996: 124)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원고를 써 왔지’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위의 (13)의 예나 다음 예 모두 ‘오다’의 사용은 매우 어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부 안 하고 {여태까지/지금까지/그때까지} 뭐 했니? (=손세모들 1996: 124 예(4))

a. *원고를 써 갔지/ b. 원고를 써 왔지/ c. 원고를 쓰고 있었지.

살펴보면 수개월 이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동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화자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으로 느끼는 시간 길이로 여겨진다. (15)의 ‘생각해 오다’를 보면 (15ㄱ)의 ‘오래전부터’라는 긴 시간뿐만 아니라 (15ㄴ, ㄷ)에 제시된 바와 같이 ‘며칠’이나 ‘몇 시간’도 가능해 보인다. (15ㄷ)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 한 문제당 10분 내외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몇 시간은 이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되어 사용 가능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2.2. 상태 변화

보조용언 ‘오다’의 두 번째 기능으로 상태 변화를 들 수 있다. 이 기능에서 선형 용언으로 형용사의 결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김선영(2021: 43)에서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 ‘오다’에 선행될 수 있는 형용사의 예를 제시하였는데 과거로부터 지속을 나타내는 경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과거로부터의 지속의 기능에서는 ‘오다’와 결합 가능한 형용사의 부류와 수가 극히 제한된 양상을 보였는데 상태 변화의 기능에서는 결합 가능한 형용사의 의미 부류도 보다 다양하며 그 수도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은 김선영(2021: 43)에 제시된 그 예이다.

(16) 상태 변화의 ‘오다’와 결합 가능한 형용사

- ㄱ. 증상 형용사: 가렵다, 가물가물하다, 가쁘다, 간지럽다, 갑갑하다, 개운하다, 고프다, 근질근질하다, 깔깔하다, 나른하다, 노곤하다, 녹작지근하다, 답답하다, 덥다, 따갑다, 또렷하다, 뜨겁다, 뜨끈뜨끈하다, 뜨끈하다, 뜨끔하다, 땀하다, 마렵다, 맑다, 맵다, 먹먹하다, 멍멍하다, 멍하다, 무겁다, 묵직하다, 몽클

하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벽차다, 빠근하다, 뽕적지근하다,
 뽕뽕하다, 서늘하다, 시리다, 시큰하다, 싸하다, 씨늘하다, 쓰
 라리다, 쓰리다, 아득하다, 아득하다, 아리다, 아찔하다, 아프
 다, 알알하다, 어둡다, 어릿어릿하다, 어지럽다, 어질어질하다,
 얼얼하다, 저리다, 짜릿하다, 찌릿하다, 쪼하다, 춥다, 침침하
 다, 허전하다, 화끈하다, 후끈하다, 훗훗하다, 흐리다, 흐릿하
 다

ㄴ. 심리 형용사: 그립다, 급하다, 갸갸하다, 께름칙하다, 따뜻하
 다, 막막하다, 맑다, 복잡하다, 뿌듯하다, 섬뜩하다, 스산하다,
 심란하다, 아릿하다, 어둡다, 우울하다, 울적하다, 잠잠하다,
 절박하다, 조급하다, 착잡하다, 초조하다, 충만하다, 캄캄하다,
 평안하다, 허전하다, 허탈하다, 후련하다, 훈훈하다, 흐뭇하
 다

ㄷ. 성상 형용사: 급박하다, 긴박하다, 깊다, 끈끈하다, 높다, 덩다,
 뜸하다, 맑다, 무덥다, 밟그스름하다, 불룩하다, 붉다, 빠듯하
 다, 소란하다, 어둑어둑하다, 어둡다, 어스레하다, 어슴푸레하
 다, 자욱하다, 질다, 차갑다, 차갑다, 촉박하다, 촉촉하다, 춥
 다, 캄캄하다, 컴컴하다, 파랗파랗하다, 환하다, 흰하다, 흐리
 다

ㄹ. 평가 형용사: 선하다, 익다

ㅁ. 비교 형용사: 가깝다, 심하다

상태 변화 용법에서 ‘오다’에 선행 가능한 형용사는 앞서 과거로부터의
 지속을 나타낼 때 결합되는 형용사들과 의미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상태 변화의 용법에서는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두드러진 결합관
 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 증상 형용사 대부분이 ‘오다’에 선행할 수 있

며 심리 형용사도 많은 수를 차지한다. 또 일부 성상 형용사들도 긴밀한 결합 관계를 맺는다.

‘가깝다, 익다’ 등의 몇몇 형용사는 ‘오다’의 두 기능과 모두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용사도 구체적인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오다’와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7) ㄱ. 어디선가 염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지족암(知足庵)이 가까워 온 것이다.

ㄴ. 어느덧 나는 4학년에 진급했고 곧 졸업이 가까워 왔다.

ㄷ. *영희는 철수에게 가까워 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ㄹ. ^{??/*}그의 춤사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몸부림에 가까워 왔다.

(18) ㄱ.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양국의 관계가 가까워 왔다.

ㄴ. 여러 해 동안 부단히 연습한 결과 그의 춤이 제법 전문가들 춤에 가까워 왔다.

(19) ㄱ. 어둠이 눈에 익어 오기를 기다렸다.

ㄴ. 수천 년래 익어 온 배달말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조차를 누리지 못하였다.

(17), (18)은 ‘가깝다’의 예이다. (17)에서 ‘가깝다’가 (ㄱ, ㄴ)의 거리나 시간의 변화를 나타낼 때는 상태 변화의 ‘오다’와 결합되나 (ㄷ, ㄹ)의 두 인물 간의 관계 변화나 대상의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는 결합에 이상을 보인다. (17ㄷ, ㄹ)의 두 용법은 반면에 (18)과 같이 과거로부터의 지속을 나타내는 ‘오다’와는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19)는 ‘익다’의 예인데 (19ㄱ)과 같이 눈의 기능 변화는 상태 변화의 ‘오다’와 결합하여 단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 반해 (19ㄴ)과 같이 특정 기능이나 문화에 대한 적응을 나타낼 때는 과거로부터의 지속의 ‘오다’와 결합한다. (18)과 (19ㄴ)의 ‘가까워 왔다’, ‘익어 온’의 경우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느껴져 상태 변화의 ‘오다’가 결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예들의 경우 수년, 수천 년에 걸쳐 오랫동안 진행된 것임에 초점이 놓이며 과거와 현재의 두 시점의 간격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과거로부터의 지속의 ‘오다’가 결합된 것이며 점진적인 상태 변화의 의미는 상황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다’가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 결합 가능한 동사 부류도 형용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동사의 경우도 내적 느낌이나 자연적인 밝기 등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황에 ‘오다’가 결합된다.

(20) ㄱ. 잠시 전부터 마르크는 자기 마음이 홀가분하고 맑게 개어 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ㄴ. 그러자 내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 오는 거예요.

ㄷ. 양희는 다리며 목덜미, 겨드랑이 밑에 땀이 끈끈하게 배어 오는 걸 느끼며 논둑에 주저앉는다.

ㄹ. 거기다가 아랫도리가 축축하게 젖어 오는 걸로 보아 드디어 양수(羊水)가 비치는 모양이었다.

ㅁ. 그는 움직일 때마다 수갑이 손목을 죄어 오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쇠창살 문을 올려다보았다.

(21) ㄱ. 희부영계 새어 오는 날과 함께 길 양편의 능선은 고요한 대로 이상한 살기가 흐르고 있었다.

ㄴ. 황혼이 빨강계 물들어 오는 어느 마을 동구 밖 느티나무 아래 피로한 다리를 끌며 오는 애녀석

ㄷ. 편지를 우체부 편에 보내고 바라보는 하늘은 짙게 구름이 끼

어 오고 있었다.

ㄹ. 집앞 골목만 벗어나면 물안개가 벌써 나를 감싸오곤 했다.

(20)은 내적 느낌을 나타내는 상황에 ‘오다’가 결합되었다. (20ㄱ)의 ‘개어 오는’은 심리적 변화를, (20ㄴ)의 ‘식어 오는’은 체온의 변화를 나타낸다. (20ㄷ~ㄹ)의 ‘배어 오는’, ‘젖어 오는’, ‘죄어 오기’ 역시 피부를 통해 느껴지는 촉각의 변화를 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은 자연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21ㄱ, ㄴ)의 ‘새어 오는, 물들어 오는’은 태양이 일으키는 빛의 변화를 나타내며 (21ㄷ, ㄹ)은 구름과 안개의 변화를 나타낸다.

변화 과정을 그릴 수 있는 동사라도 ‘오다’에 의해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죽다, 믿다’ 등은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 ‘오다’는 이들 동사의 변화 과정은 그리지 못한다.

(22) ㄱ.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다.

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 갔다.

(23) ㄱ. 많은 사람들이 죽어 왔다.

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 왔다.

(22)의 ‘죽어 갔다, 믿어 갔다’의 경우 두 가지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개개인이 시차의 차이를 두며 믿는 것과 죽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사람들 전체의 상태가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가다’와 달리 ‘오다’는 ‘죽다, 믿다’가 가지는 변화 과정은 그리지 못한다. (23)에서 ‘죽어 왔다, 믿어 왔다’는 개개인이 시차의 차이를 두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으로만 해석된다.

‘오다’가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 이에 선행하는 동사, 형용사 부류는 과

거로부터 지속을 나타낼 때와는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상태 변화 용법은 기능상에 나타나는 특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오다’가 과거로부터의 지속을 나타낼 때 시작이 되는 시점과 도달점이 되는 시점은 핵심 의미 요소가 되며 두 시점 모두 화자가 관찰 가능한 시간 영역에 속함을 살펴본다. 그러나 상태 변화 기능에서는 두 시점을 의미 요소로 보기 어렵다. 상태 변화 기능은 특정 한 시점만이 존재하며 이 시점은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될 수 있다.

(24) 날이 밝아 왔다/온다/올 것이다.

(25) ㄱ. 1시간 전만 해도 캄캄하던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ㄴ. (환해진 밖을 보며) 벌써 날이 밝아 오고 있구나.

ㄷ. *아침을 먹을 때까지 날이 밝아왔다.

(24)는 ‘오다’가 상태 변화 용법에서는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상황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변화 과정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었을 때 ‘오다’에 의해 그려지는 변화는 그 초기나 중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5)에서 (ㄱ)은 날이 막 밝기 시작한 상황으로 변화의 초기를 나타낸다. (ㄴ)은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중기로 파악되는데 밖이 환해진 상황이나 ‘-고 있다’의 결합은 이를 드러내 준다. 반면에 (ㄷ)에서 아침을 먹을 때까지’라는 완료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는 ‘밝아왔다’의 수식에 이상을 보인다. 이것을 미루어 보면 ‘오다’는 변화의 말기는 나타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상태 변화의 용법에서는 과거로부터의 지속의 용법과 달리 변화의 끝, 즉 도달 시점과 의미적으로 관련을 맺는 않는다. 그렇다면 본용언의 ‘이동 목표가 되는 화자’의 의미가 이 용법으로 문법화되는 과정에서는 사라졌다

고 할 수 있을까?

‘오다’가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 증상 형용사나 심리 형용사와 같은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과 현저하게 결합됨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기동(1977: 154)에서는 우리의 감정은 항상 변하고 또 감각을 새로이 느끼게 되는데 슬픔이나 기쁨을 느낀다는 그러한 느낌이 어느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되어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느끼기 시작할 때 ‘오다’가 결합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따른다면 본용언의 ‘화자 목표’는 감지하는 사람으로, ‘이동 대상’은 감정이나 감각으로 문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증상 형용사와 달리 감정 형용사의 경우 일부만이 ‘오다’와 결합될 수 있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되어 ‘오다’가 결합된다고 하기 어렵다.

김선영(2021: 53-54)에서는 증상 형용사가 ‘오다’와 현저하게 결합되는 것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증상 형용사의 의미 특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어떤 증상을 느낄 때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느껴지다가 점점 더 강도가 분명해지고 강해지는데 이러한 상황은, 어떤 대상이 화자 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가 증상 형용사가 지닌 본래적인 특성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증상 형용사나 심리 형용사는 작은 변화도 느낄 수 있어 단계적 변화를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오다’에 선행할 수 있는 형용사에 ‘어둡다, 환하다, 흐리다’와 같이 빛과 관련된 자연 변화를 그리는 형용사들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자연 현상 역시 짧은 시간에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보통 자연 발생적인 변화에 해당한다. 색이나 모양을 나타내는 일부 성상 형용사도 ‘오다’와 결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용사의 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6) ㄱ. 술을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점점 붉어 왔다.

ㄴ.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가쓰꼬의 배는 제법 볼록해 왔는데

(26)은 성상 형용사 ‘붉다, 볼록하다’의 예이다. (26ㄱ)은 술을 마신 후 얼굴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보통 얼굴이 점차적으로 붉어지는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황에 ‘붉어 오다’의 사용이 확인된다. (26ㄴ) 역시 임신 후 배 모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연적인 변화 상황에 해당한다.

하나의 형용사가 용법에 따라 ‘오다’와의 결합 관계가 달라지는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느냐의 여부가 이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7) ㄱ. 벌써 하늘이 {어두워지네, 어두워져 오네}. (=김선영 2021: 54

예(38))

ㄴ. 나이를 먹으니 귀까지 {어두워지네, 어두워져 오네}.

ㄷ. 비가 내리니 내 마음까지 {어두워지네, ?어두워져 오네}.

ㄹ. 별 말도 아닌데 뭘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지냐, ??/*어두워져 오냐}.

‘어둡다’가 (27ㄱ)에서와 같이 빛의 자연적인 변화를 나타내거나 (27ㄴ)에서와 같이 시력, 청력의 변화를 나타낼 때 ‘오다’와 자연스럽게 결합된다. (27ㄱ, ㄴ)은 본래부터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오다’와 쉽게 결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점진적인 변화가 잘 그려지지 않는 상황의 경우 ‘오다’와의 결합에 제약을 보인다. (27ㄷ)의 심리적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결합이 가능해 보이나 (27ㄱ, ㄴ)과 비교하면

수용성이 떨어지며 (27ㄷ)의 표정 변화는 수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27ㄷ)의 심리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나 이것이 뚜렷이 감지되지 않는다. (27ㄷ)의 표정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오다’와 잘 결합되지 않으며 다른 용법에 비해 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화(1990/2003: 153-168)에서는 ‘오다’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용법을 누적성 진행상(進行相)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상태 변화의 ‘오다’는 형용사와 폭넓은 결합 관계를 가지며 동사보다 오히려 형용사와의 결합이 두드러진 점에서 ‘오다’를 상의 일종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예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화가 심해지는 방향으로의 과정을 나타내는 점에서 ‘누적성’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용법에서 본용언의 ‘이동’의 의미는 단계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동 목표는 변화의 최종 단계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단계로의 도달 여부는 드러나지 않는 점에서 본용언의 ‘화자 목표’는 비관여적인 의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3. 착점의 초점화

‘오다’의 세 번째 용법은 착점이 되는 대상을 초점화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연세 한국어사전》에 제시된 다음의 기능에 해당한다.

(4) [동사의 ‘-아/어’꼴 뒤에 쓰이어] 나에게 어떠한 행위를 취하다.

¶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오던 박석연과 마침내 통화할 수 있었다.

《연세 한국어사전》

예로 제시된 ‘걸어 오다’의 ‘오다’를 보조용언의 용법의 하나로 설명하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연세 한국어사전》과 달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걸어오다’로, 하나의 동사로 등재하였다. 박양규(1987)에서도 복합동사의 일부로 설명하였다. ‘걸어오다’의 경우 빈번하게 사용되어 합성동사로 어휘화된 것으로 판별할 수 있다. 그러나 ‘오다’가 결합된 동사 모두를 합성동사로 판별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기능의 ‘오다’에 선행 가능한 동사의 수가 결코 적잖은 것으로 확인된다.

말뭉치에서 발화 동사와 관련을 맺는 동사와 ‘오다’가 현저한 결합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 발화 행위가 ‘오다’와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다, 묻다, 고백하다’ 등의 발화 동사뿐만 아니라 이에 속하지 않으나 발화 행위와 관련을 맺는 상황에 ‘오다’가 현저하게 결합된다.

(28) ㄱ. 체중도 많이 늘고 좋아져서 세 번째 수술을 하자고 전해 왔다.

ㄴ. 유엔 안보리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북한측은 「특별사찰이 아닌 일반사찰」 수용 의사를 전달해 왔다.

(29) ㄱ. 채권단은 “오늘까지 국내 1개와 해외 5개 업체가 인수의를 밝혀 왔다”며

ㄴ. 그는 그러나 북한 당국이 평양에 머무는 동안 조문의사를 탄 전해 왔으나 이를 거절했다면서

ㄷ. 다나베 마코토(전변성) 일본사회당위원장이 오는 26일경 오재희 주일한국대사와 회담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해 왔다고 대사관 소식통이 20일 밝혔다.

‘전하다, 전달하다’는 ‘보내다’와 같이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동사에 해당하는데 (2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해 오다, 전달해 오다’는

주로 발화 행위 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29)는 발화 동사의 용법을 가지거나 발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동사들이다. ‘밝히다’는 내용절을 보문으로 취하는 발화 동사로 사용되는데 이 발화 동사의 용법에 ‘오다’가 결합된다. ‘타진하다, 표명하다’는 ‘의사, 입장’과 같은 명사를 목적어로 취해 생각을 확인하거나 겉으로 드러내는데 발화 행위와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오다’는 ‘말하다, 묻다, 고백하다’ 등의 발화 동사뿐만 아니라 ‘부탁하다, 신청하다, 표명하다’ 등 발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동사들과 결합된다. 그런데 발화 행위와 관련된 동사에만 결합이 한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30) ㄱ. 상대가 먼저 공격을 해올 때는 이쪽도 생각할 겨를 없이 마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ㄴ. 어느 결엔지 상호는 현우의 어깨에다 팔을 얹었다. 현우도 힘을 주어 그의 어깨를 껴안았다. 나중엔 모두가 어깨동무를 해왔다.

(31) ㄱ. 능실의 일이 갑자기 그의 기분을 다시 불안하게 해왔다.

ㄴ. 부여와 공주간에 지역간 대립이 사실상 표면화되어 버린 지금에 와서 공주 쪽 사람이 아닌 나 실장으로부터의 도전은 몹시도 기분을 상하게 해 온 것이었다.

ㄷ. 유리창을 때리는 빗줄기가 갈수록 드세어지고 있는 것도 기분을 자꾸 앞답스럽게 해 왔다.

(30), (31)은 구 구성에 ‘오다’가 결합된 예이다. (30)에서 ‘오다’는 ‘공격을 하다’, ‘어깨동무를 하다’에 결합되었으며 (31)에서는 ‘-게 하다’ 사동 구

성에 결합되었다. (30)과 같이 ‘NP을/를 하다’에 ‘오다’가 결합된 예들이 적잖게 나타난다. 용례가 매우 드물지만 ‘-게 하다’ 구성에 ‘오다’가 결합된 예들도 확인된다. (31)에 제시된 예 외에 말뭉치에 출현한 예는 두서너 예에 불과하며 모두 문학 작품에 쓰인 예이다. ‘-게 하다’에 ‘오다’가 결합된 구성은 아직 일상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오다’의 결합 여부에 따른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며 작은 뉘앙스의 차이 또한 표현해 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감안하면 ‘-게 하다’ 구성에 ‘오다’의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31)의 예들의 경우 사용 가능한 것으로 수용해도 다른 용법의 ‘오다’가 확장된 쓰임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다. (31)의 예 모두 심리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상태 변화의 ‘오다’가 결합되었다는 해석이다. 상태 변화의 ‘오다’의 경우 타동사 구문이 아닌 자동사 구문에 결합된다. 따라서 (31)의 예들을 (32)의 자동사 구문에서 전환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32ㄱ)의 ‘불안해져 왔다’는 자연스러운 반면에 (32ㄴ, ㄷ)의 ‘상해져 왔다, 암담스러워져 왔다’는 그렇지 않아 (31)의 예들이 (32)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상태 변화의 ‘오다’가 사동 구문에까지 사용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먼저 타동사와 결합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압박해 오다’의 경우 (33ㄱ)의 예에서 심리적 변화가 느껴져 타동사와 상태 변화의 ‘오다’가 결합된 예로 가정해 볼 수 있으나 대상의 심리적 변화는 정황상 그려지는 의미일 뿐 ‘압박해 오다’에 내재된 의미로 볼 수 없다. 또한 (33ㄴ)과 같이 목적어가 무생물인 경우에도 ‘오다’가 결합되는데 대상의 심리적 변화, 즉 상태 변화와는 무관하게 쓰이는 이런 예들까지 고려하면 ‘압박하다’와 결합된 ‘오다’의 기능을 상태 변화로 단정하기 어렵다.

(32) ㄱ. 능실의 일로 인해 그의 기분이 불안해져 왔다.

ㄴ. ??나 실장으로부터의 도전으로 인해 기분이 상해져 왔다.

ㄷ. ??유리창을 때리는 빗줄기로 인해 기분이 암담스러워져 왔다.

(33) ㄱ. 채무 상환 일자가 늦어지자 그가 나를 또 압박해 왔다.

ㄴ. 또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 버려 생계를 압박해왔다.

박양규(1987)에서는 ‘오다’의 기능에 대해 본동사 ‘오다’의 의미에서 이동의 의미가 사라지고 ‘착점(着點)’의 의미만 남은, 의미의 퇴색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였다. ‘보내오다’를 그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오다’가 착점의 의미만을 더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34) ㄱ. [보내오다]=[보내다][G-시점] (=박양규 1987: 475 예(44a))

ㄴ. [가져오다]=[가져가다][G-시점]=[가지다][가다][G-시점]

(= " " 474 예(37a))

‘보내오다’는 ‘보내다’의 의미에 착점이 더해진 것이라 한다. 이해를 위해 ‘가져오다’의 의미와 비교하면 ‘가져오다’는 ‘가지다’의 의미에 ‘가다(=이동)’와 착점의 의미가 더해진 것인 반면에 ‘보내오다’는 ‘가져오다’와 달리 이동의 의미는 없고 착점만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착점은 화자의 시점(視點)이 있는 위치로 정의하였다.⁸

8 박양규(1987)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내오다’를 ‘보내다’와 비교하였는데 ‘보내오다’의 ‘오다’에 본동사의 착점의 의미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삼숙아, 그 책을 일숙이에게 주려면 1가로 {보내오고, 보내고}(a) 사숙이에게 주려면 4가로 {보내오너라, 보내라}(b). 그리고 이숙이에게 주려면 2가로 {보내오너라, 보내라}(c)

또한 박양규(1987)에서는 ‘오다’가 ‘보내다’와 같이 이동의 의미를 지닌 일부 동사와 결합하여 복합동사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물어오다, 알려오다, 부탁해오다’ 등에서 ‘묻다, 알리다, 부탁하다’에 이동의 의미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를 다음의 예로 설명하였다.

(35) ㄱ. 삼숙이가 이숙이에게 나이를 {물어왔나, *물어갔나, 물었나} 봐.

ㄴ. 삼숙이가 이숙이에게 합격을 {알려왔나, *알려갔나, 알렸나} 봐.

ㄷ. 삼숙이가 이숙이에게 협조를 {부탁해왔나, *부탁해갔나, 부탁했나} 봐.

(=박양규 1987: 479 예(53))

(36) ㄱ. 삼숙이가 이숙이에게 나이가 몇이냐는 질문을 {보내왔나, 보냈나} 봐.

ㄴ. 삼숙이가 이숙이에게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보내왔나, 보냈나} 봐.

(나) 일숙아, 삼숙이가 그 책을 어디로 {보내올까, 보낼까}(a)? 너한테 {보내올까, 보낼까}(b)?, 아니면, 이숙이에게 {보내올까, 보낼까}(c)?

(다) 이숙아, 삼숙이가 그 책을 거기로 {a. 보내오거든, b. 보내거든} 내게 좀 알려 다오.
(=박양규 1987: 476 예(46)-(48))

(가)-(다)는 화자와 일숙이는 종로 1가에, 이숙이는 2가에, 삼숙이는 3가에, 사숙이는 4가에 있는 상황에서 나누는 대화이다. (가a), (나b)의 ‘보내오다’는 화자의 현위치에 놓인 시점과 착점의 일치로, 그리고 (다a)의 ‘보내오다’는 청자의 위치로 옮겨진 시점과 착점의 일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반면에 시점 이동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점과 착점이 일치하지 않는 (가b,c, 나c)나 일치 여부를 말할 수 없는 (나a)에서는 ‘보내다’가 택하여진다고 하였다.

ㄷ. 삼숙이가 이숙이에게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보내왔나, 보냈나) 봐.

(=박양규 1987: 480 예(53"))

박양규(1987)에서는 (35)의 예들이 (36)와 같이 의역될 수 있는 점에 근거하여 ‘묻다, 알리다, 부탁하다’의 의미에 이동의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5)에서 삼숙이와 이숙이가 각각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나눈 대화라면 (36)와 같은 의역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다면 (36)와 같이 의역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다른 장소에 있을 때만 (35)를 (36)으로 바꿀 수 있는데 ‘묻다, 알리다, 부탁하다’에 ‘보내다’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묻다, 알리다’ 등의 발화 동사는 발화 내용이 화자로부터 청자에게로 이동한 것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대상의 이동이 발생되면 이동으로 인한 장소의 변화가 일어난다. 대상이 원래 있던 장소에는 빈자리가 생기며 이동된 장소에는 원래 있던 빈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발화가 이루어지면 청자가 이를 들음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이동된 장소의 공간적 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발화를 함으로써 화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명치 않으며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원래 있던 장소에 빈자리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 발화 동사가 이동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설명은 의미적으로 타당하게 설명되기 어려워 보인다.

‘오다’의 이동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공격해 오다’의 경우 공격 대상이 다음과 같이 목적어뿐만 아니라 부사어로도 실현된다. 그런데 부사어로 실현되는 경우 부사어는 이동 방향을 나타내며 공격 대상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음 (37

ㄱ)에서 ‘서방을’은 ‘서방으로’로 교체 가능한데 ‘서방으로’로 교체하면 ‘서방을’과 달리 ‘서방’은 공격 대상이 아닌 이동 장소로 파악되며 공격 대상은 서방에 사는 진나라 사람들로, 이것이 생략된 것처럼 보인다. 즉 (37ㄴ)과 같은 문장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서방으로’는 ‘공격하다’가 아닌 ‘오다’에 의해 실현된 논항으로, ‘오다’가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논항을 취할 수 있는 점에서 ‘오다’에 이동의 의미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7) ㄱ. 오국합중(五國合縱)을 맺은 다섯 나라가 진나라의 (서방을, 서방으로) 공격해 왔던 것이다.

ㄴ. 오국합중(五國合縱)을 맺은 다섯 나라가 서방으로 진나라 사람들을 공격해 왔던 것이다.

(38) ㄱ. *오국합중(五國合縱)을 맺은 다섯 나라가 진나라 사람들을 공격해 서방으로 왔던 것이다.

ㄴ. 야만족들은 아르고선의 대원들을 보자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도끼를 휘두르며 {대원들을, 대원들에게} 공격해 왔다.

그런데 ‘공격해 오다’의 ‘오다’가 부사어 논항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오다’가 보조용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다’가 이에 서 온전히 본용언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도 없다. (38ㄱ)과 같이 ‘공격해 오다’를 분리해 ‘서방으로’를 그 사이에 개재시키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38ㄴ)에서 ‘공격해 왔다’는 두 가지의 행동으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행동으로 그려진다. 즉 ‘오다’의 이동의 의미는 사라지고 ‘공격하다’의 방향을 지시하는 의미로 그려진다. 이러한 의미·통사적 특성을 고려하면 ‘오다’는 ‘공격하다’와 결합하여 어휘화된 합성동사의 일부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⁹

‘오다’에 이동의 의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의심되던 ‘공격해 오다’를 제외하면 ‘오다’의 이동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화자를 착점으로 하는 ‘오다’의 의미 특성은 착점의 역할을 하는 부사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들과 주로 결합되는 점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다’의 이동의 의미가 퇴색되었으나 ‘오다’가 결합함으로써 이동할 때 느껴지는 방향성의 의미가 선행 행위에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착점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오다’의 기능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하나의 기능이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발달된 것으로 보였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근거로 결합 가능한 선행 용언이 각기 다름을 들었다. ‘과거로부터의 지속’을 나타내는 ‘오다’의 경우 동사와 두루 결합하며 존재 형용사나 태도를 나타내는 일부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점진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오다’는 증상 형용사와 심리 형용사와의 결합이 두드러지며 빛이나 색 등의 자연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성상 형용사와도 빈도 높게 결합되었다. 동사와의 결합에서도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증상, 심리 등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9 ‘주다’, ‘지다’ 등 선행 동사에 결합하여 그 논항 구조를 바꾸는 용언들에 대해서 학교문법에서와 같이 보조용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주다’, ‘지다’의 경우 선행 가능한 용언이 다양하게 나타나 결합된 구성 모두를 합성동사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오다’는 이와 달리 ‘공격해 오다’와 같은 예가 드물어 이를 합성동사로 처리하는 것이 무방하다.

지막으로 ‘착점의 초점화’를 나타내는 ‘오다’는 발화 동사나 의미적으로 발화와 관련을 맺는 동사와 두드러진 결합 관계를 맺는다.

각각의 기능에 따라 ‘오다’의 특징이 달리 나타나는데 이를 본용언 ‘오다’의 의미의 퇴색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과거로부터의 지속’ 기능에서는 이동의 의미는 시간적 이동으로, 화자를 착점으로 하는 의미는 현재나 현재 이전의 시간적 착점으로 문법화되었다. ‘상태 변화’의 기능에서는 이동은 점진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나 착점의 의미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착점의 초점화’ 기능에서는 이동의 의미는 사라졌으며 착점의 의미는 행위 대상을 향한 방향을 나타내는, 착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변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다’는 ‘가다’ 등의 다른 보조용언과 주로 비교, 연구되었다. 그런데 각각의 기능을 고려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각각의 기능에 따른 ‘오다’의 특성이 달리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보조용언과의 비교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1. 논문

- 권순구(2005), 「국어 보조용언의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기혁(1987), 「국어 보조동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형(1984), 「가다의 의미 연구」, 『자하어문논집』 3, 상명여자대학교, 87-124쪽.
- 김선영(2011), 「형용사·동사 양용 용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영(2015), 「형용사와 ‘-어 가다」, 『한글』 311, 한글학회, 165-196쪽.
- 김선영(2021), 「보조용언 ‘오다’의 상태 변화 기능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의미학』, 31-58쪽.
- 도원영(2002), 「국어 형용성 동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선옥(2002), 「국어 보조동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양규(1987), 「‘보내오다’ 류의 유표적 복합 동사들」, 『국어학』 16, 국어학회, 459-486쪽.
- 박진호(1998), 「보조용언」,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기념 논총), 태학사, 139-164쪽.
- 박진호(2003),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 요소의 결합 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기동(1977), 「동사 ‘오다’, ‘가다’의 의미 분석」, 『말』 2, 연세대학교, 139-159쪽.
- 이영경(2003), 「중세국어 형용사의 동사적 용법에 관하여」, 『형태론』 5-2, 박이정, 273-295쪽.
- 이영경(2007), 「‘값다’ 류 용언의 동사적 성격과 ‘-었-」, 『형태론』 9-2, 박이정, 277-292쪽.
- 진려봉(2008), 「한국어 동사 ‘가다’와 ‘오다’의 의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하선정·김태호(2014), 「영어와 한국어 이동 동사의 의미 확장 양상 비교 연구」, 『언어과학』 21-3, 193-216쪽.

Dixon, R. M. W.(1977), Where have all the adjectives gone?, *Studies in Language* 1. 19-80쪽.

Dixon, R. M. W.(1994), Adjectives, In R. E. Asher(Ed.),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Oxford: Pergamon Press. 29-35쪽.

Dixon, R. M. W.(2004), Adjective Class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In R. M. W. Dixon, & A. Y. Aikhenvald(eds.). 1-49쪽.

2. 단행본

강현화(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김성화(1990/2003), 『국어의 상 연구(개정판)』, 한신문화사.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정언학(2006), 『상 이론과 보조용언의 역사적 연구』, 태학사.

Bybee, J. L., R. Perkins & W.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ixon, R. M. W. & A. Y. Aikhenvald(eds.)(2004), *Adjective Classes: A Cross-Linguistic Typ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etzer, H.(1996), *The typology of adjectival predication*, Berlin: de Gruyter.

3. 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The Function of the Auxiliary verb ‘oda’

Kim Sun Young

Previous studies have set the basic meaning of the auxiliary verb ‘oda’ and explained that it depends on the context, but there is a problem in explaining it in a derivative sense. This paper explained that the functions of ‘oda’ are not derived from each other but developed independently. It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combined preceding terms are different, and the grammatical meaning characteristics of ‘oda’ are different. In the case of ‘oda’, which represents ‘continuation from the past’, it can be combined with verbs and some adjectives representing existence or attitude. The meaning of movement of the main verb ‘oda’ has changed into the meaning of time movement and the meaning of the speaker as the point of arrival has been grammaticalized as a temporal arrival point in the present or before the present. Next, ‘oda’ which represents ‘gradual state change’, the combination of symptomatic and psychological adjectives is remarkable, and it is frequently combined with some descriptive adjectives that represent natural changes such as light or color. It can also be combined with verbs, and like adjectives, that represent symptoms and psychology.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meaning of movement has changed to represent a gradual state change, but the meaning of the point of arrival has disappeared. Finally, ‘oda’ which

stands for 'focusing of the arrival point', a remarkable combination relationship is formed with the speech verbs or the verbs that are meaningfully related to speech. In this function, the meaning of movement has disappeared.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meaning of the arrival point has changed into the meaning for emphasizing the direction toward the object of action.

Keywords: movement, the arrival point, duration of time, state change, directionality